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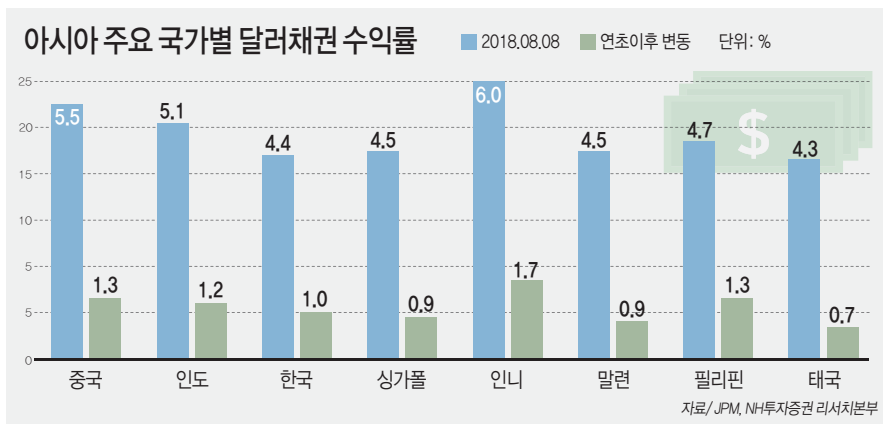
글로벌 핫머니 '韓채권' 사재기... 外人 발빠면 '빨간불'

(단기투자자금)

외국인 투자 188억달러 증가
외환보유 4024억달러 버퍼 역할
韓美 금리차 확대 완충역할 기대

글로벌 핫머니(단기 투자 자금)가 단기채권 위주의 한국 채권을 싹쓸이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 '큰손'인 미국 프랭클린템플턴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원화채권 비중을 줄이자 외국인 이탈을 걱정했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채권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한동안 재정거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자금이 단기 이벤트에 취약한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프랭클린템플턴 마저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 회수기간)을 짧게 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1001억 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인 채권투자를 늘려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187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식투자는 8억 6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금융센터 홍서희 연구원은 "만기 3년 이하 국채 투자자금은 2016년 급격히 유출된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최근 원화채를 매수하는 주요 외국인 주체 가운데 국부펀드와 중앙은행계 자금도 상당하다. 외국인의 원화채 수급 안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부펀드로는 노르웨이 연기금(GPFG)과 싱가포르 투자청(G

IC),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투자청, 중국 CIC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체력이 아직은 외풍에 버틸만 하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포함한 36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7월 외환보유액'은 4024억달러다. 외환보유고는 외풍의 버퍼 역할을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건조한 경상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한미 금리차 확대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점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P모건은 "한미 금리차가 확대(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019년까지 150bp(1bp=0.01%포인트)까지 올리면 금리차가 100bp를 상회할 가능성)된다면 최근 유입자금이 유출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규 채권 투자자금이 지난 2016년과 같이 둔화할 경우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내년 말까지 90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터키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달러 강세도 걱정이다. 달러가 오르면 해외 빚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외채무는 4339억달러로 151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05억달러다.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미 달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은 지난 14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계양을 유도해 광복 의미를 되새기고자 '태극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경남은행

BNK경남은행 광복절 '태극기 나눔 행사' 열어

BNK경남은행은 지난 14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계양을 유도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태극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15일 밝혔다.

김갑수 상무와 울산지역봉사대 40여명은 울산 롯데백화점 일대(울산 삼산동 소재)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줬다.

무료로 배부한 태극기는 모두 500세트 규모로 국기 계양과 보관이 용이하게 태극기·깃대·무궁화봉·국기함 등으로 구성됐다.

김갑수 상무는 "73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기념해 울산 시민들에게 태극기 계양 유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 태극기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광복절뿐만 아니라 기타 국경일도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거는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광복을 위해 헌신한 지역 출신 애국지사를 조명하기 위해 경남동부보훈지청과 함께하는 '우리 고장애국지사 알리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KEB하나은행 축구 국대 아시안게임 응원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및 K리그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승리를 지원하는 손님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승리기원 이벤트는 KEB하나은행 전속모델이자 대한민국 축구 간판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다.

먼저 오는 24일까지 '오! 필승코리아적금 2018'에 신규 가입하는 손님 전원에게 손흥민 선수 이모티콘을 제공한다.

또한 15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경기 및 토너먼트 경기 일정에 맞춰 SNS를 통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 이벤트와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

도 진행한다.

KEB하나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하나금융그룹 페이스북, K리그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스코어 맞추기에 성공한 손님에게 손흥민 선수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다.

KEB하나은행 리테일마케팅부 관계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큰 감동을 주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여정을 손님과 함께 응원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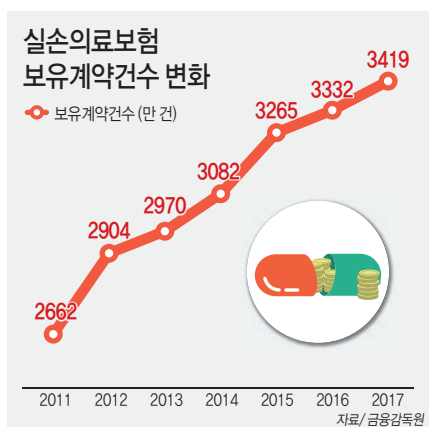
아프고 나서 보험가입? 보험료 '인상' 부른다

실손보험 보험의 역선택 현상 증가
손해율 100% 넘어서 보험료 인상

#.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직장인 A씨(30)는 최근 허리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담당의사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비급여로 책정되는) 허리디스크 치료비용이 만만찮으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이었다. 병원은 A씨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허리디스크 관련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고, A씨는 실손보험 가입 후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6%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을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419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87만 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0%포인트(131.3%) 개선된 반면 2011년 93.6%와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가량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보험의 '역선택'이 꼽힌다. 일부 질병의 경우 자가진단만으로도 발병 유무를 알 수 있게 되거나 병원을 찾더라도 병원 측에서 고의로 진단기록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 선진단 후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째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

는 약속이나 수작)를 한 경우 보험사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보험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전 성별, 연령 외에도 최근 진단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병원과 환자가 말을 맞춘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면서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한방치료와 치과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히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원과 낸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환자의 잘못된 판단이 실손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손해보험 폐지수집 어르신에 안전용품 전달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경동시장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반짝반짝 캠페인'을 열고 안전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들의 심의 심야·새벽 시간대 안전한 이동을 돕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손보 사장님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형원 경동시장 사장, 허덕조 동대문구 폐지수집 대표, 오광수 경동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KB손보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조끼, 단디바와 함께 폭염 속 무더위를 달래줄 보냉가방, 부채 등 총 800개의 물품을 전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단단히"의 경상도 방안 '단디'를 붙인 단디바는 어르신들이 이동 시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부착하는 야광 반줄로,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종희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관계자들이 '반짝반짝 캠페인'을 열고 안전용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전달식 후에는 폐지수거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희주 기자 hj9@